

**“언론에 보도된
민간투자사업”**

By 박병률

2014.11

민간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국민에게 신뢰를 줬나?"

"국가 재정을 아꼈나?"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졌다?**



민간투자사업

-잘못된 예측, MRG 증가

"부산항대교, 하루 평균 교통량은 2만대
부산시는 올해 35억원이 넘는 재정보전금 지급 전망
계획통행량은 하루 평균 5만대
MRG 기준 통행량, 계획통행량의 80%인 4만대"

-가격이 비싸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평균 약 1.85배
비싸"

민간투자사업

- 심지어 주유소도 비싸

"휘발유값이 싼 주유소 상위 20곳=모두 도로공사 임대
휘발유값이 비싼 주유소 상위 20곳=모두 민간투자 방식.
덕평휴게소 ㄹ 당 1918원-용인휴게소 1760원= ㄹ 158원"

- 관피아 취직처?

" 최근 5년 간 민자고속도로 재취업한 국토부 출신 4급 이상
= 12명(대표 10명, 감사 2명), 8개 업체에 전직"

민간투자사업

—특정 투자사만 왜?

"마창대교, 서울지하철9호선, 광주2순환도로, 부산 수정터널, 천안-논산고속도로, 우면산 도로 현재도 12개"

박재완 전 기재부 장관, 2012년 8월

"특정회사에 너무 편중되 민투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절세?

"2014년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국가보조금(용지비, 건설보조금)과 MRG 지원규모(1조4104억 원)가 재정고속도로에 대한 국가보조비(1조 4094억 원)를 초과"

민간투자사업

Q. 민투사업, 공공기관 경쟁력을 높였나?

- 노선 경쟁 있나?
- 자금조달 비용 줄었나?
- 건축물의 시설이 좋아졌나?
- 도공 수익구조는 되레 나빠졌다는데?

Q. 국가재정 절약했나?

- 후대에 빛만 남긴 것 아닌가?
- MRG로 재정부담 눈덩이?
- 후순위채 꼼수?
- 재구조화에 따른 국가신뢰는?



민간투자사업

Q. 소비자 후생은 높아졌나?

- 가격대비 서비스 질 높아졌나?
- 휴게소, 심터 부족하지 않나?
- 진출입 쉬워졌나?

Q. 투자자와 유착없나?

- 퇴직관료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는?
- 해외투자자, 연기금, 대기업의 놀이터?
- 알짜 구간만 준 것 아닌가?

